

“전용 야구장 생겼다” 나주 세지中 ‘野好’

금성이엔씨 나성범 대표 기탁... 폐교 부지에 개장

지난해 야구부를 창단했던 나주세지중학교가 전용 야구장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탐구집에 들어갔다. 나주 세지중학교(교장 김맹렬)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4시 옛 세지초등학교에서 이사장 원일섭(나주미르사 주지)과 임성훈 나주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선수와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야구장 개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해 11월 창단식을 가진 세지중

야구부는 전 MBC 청룡과 LG트윈스 프로야구 출신 김태원씨를 감독으로 선임했으며, 3명의 코치진을 포함해 30여명으로 야구단을 구성했다. 이번 전용야구장은 세지중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금성이엔씨(주)의 나성범 대표가 폐교된 옛 세지초등학교를 지난 99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활용해오다 후배들을 위해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김맹렬 교장은 축사에서 “ 그동안

선수들이 구장이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운동을 했는데, 전용구장이 마련돼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열심히 훈련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훈 시장도 축사에서 “세지중 야구부가 야구 불모지인 나주에 새싹을 틔우고 하루빨리 실력을 쌓아서 전국 대회를 주름잡는 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세지중 야구부 창단이 지역 학생 야구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20일부터 7월28일까지 토



요일과 일요일 4일간 나주시 일원에 2013 KBO총재배 전국여자야구대회가 개최된다. /나주=손영희기자 yacson@

전선 훑쳐 도박 군의장 친척 강진군의회, 구명운동 빈축

군의원 8명중 6명 서명

강진군의회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불법자를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강진군의회 등에 따르면 울초 진도경찰은 14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농업을 전선을 훑쳐 경마장 도박 등으로 탕진한 운도(50)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운씨는 윤재공 강진군의회 의장의 친척으로, 윤 의장이 윤씨를 구명하기 위해 서명을 하고 전체 군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원은 “좋은 일에 쓴다며 의장이 찾아와 부탁해 별 의심 없이 서명한 것일뿐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

다”며 “확인 없이 해준 서명이 이런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대로 서명을 거부한 모 의원은 “설사 동료의원 일부가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해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절도범을 구명하기 위해 군의회의장과 의원들이 서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관내 공공기관 계산관에 “군의회 의장과 일부 군 의원들이 한국전력의 전선을 도둑질해 그 돈으로 도박을 한 이들의 구명을 위해 의장이라는 직함과 직분을 이용해 서명을 받고 있다”는 글이 게재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의학박람회 성공 개최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 '201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이 13일 오전 장흥 토요시장에서 열렸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자전거 홍보단은 오는 10월 31일 통합의학박람회가 끝날때까지 주말마다 전국을 누비며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남도 제공>

‘산들촌’의 끝없는 담양사랑

과자생산업체 연 매출 75억 2년째 담양산 밀 전량 구매

관료가 없어 걱정하고 있는 담양군 내 우리밀 재배농가들을 위해 밀 전량을 지역 유기농 과자 생산업체가 구매해주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담양군은 14일 “지난 10일 유기농 과자 생산업체인 (주)산들촌이 담양에서 생산되는 우리밀 전량을 구매,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관료가 막힌 우리밀 재배농가의 걱정을 덜어줬다”고 밝혔다. 담양군이 ‘로컬 푸드 운동’을 한층 발전시킨 ‘농업과 식품과의 연계 강화사업’으로 농가와 인연을 맺게 한 (주)산들촌이 담양 농가의 우리밀을 지난해에 전량 구매할 바 있다. (주)산들촌은 올해도 40t이 넘

은 우리밀을 40kg 포대 당 3만 7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전량 매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밀 생산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게 된 것은 민선 5기 취임 후 적극 추진한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이 주효했으며,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토대로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사업’에 주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산들촌은 지난 2011년도에 담양군의 친환경 농식품 가공 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을 갖추고, 친환경 과자를 중점 생산하고 있다. 이 친환경과자를 전국 유기농 식품판매점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유기농 과자를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7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오늘 개장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15일 개장한다. 나주시는 “여름철 시민 휴식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시설 보안을 마치고 오는 8월 25일까지 42일 동안 무료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금성산 자락 1만여㎡ 부지에 지난 2009년 조성된 물놀이장은 2000여㎡ 규모의 풀장에 쉼터, 데크 시설 등을

갖췄다. 올해는 풀장 바닥과 데크시설 보수, 주차장 포장 등을 마무리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객 연령대를 고려해 수심을 달리한 3개의 풀장을 갖췄으며 공사 과정에서 나온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 /나주=손영희기자 yacson@

전북

순창 사상 첫 예산 3000억 시대

국가예산 확보·수입 증대·예산 절감 효과 주효

순창군이 사상 최초로 예산 3000억 시대를 열었다. 군은 14일 “올해 군정목표를 인구 3만명 유지, 예산 3000억 달성, 관광객 300만명 유치로 정하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3000억 예산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국세 정산에 따른 교부세가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남다른 노력 끝에 얻은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가용재원

확보로 3035억원에 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창군의회에 지난 10일 상정했다. 세입유형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97억원, 국비 937억원, 도비 203억원 등이며, 회계별 예산액의 경우 일반회계가 2876억원, 특별회계가 159억원 규모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작은목욕탕 조성 ▲방산재해위험지구 ▲농공 생산 및 유통 장려금 ▲풍산면 사무소 앞 유휴도로 개설 등이다. 또 복지사업 등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 등 필요사업에 대해 추가로 예산

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관련 예산이 786억원(25.90%)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392억원(12.90%), 국토 및 지역개발 243억원(8.03%), 환경보호 242억원(7.97%) 등의 순이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해 내국세 정산으로 전국 지자체에 내려온 교부세가 크게 감소했으나 그동안의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자체수입 증대,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으로 3000억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창군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창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최종 결정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 복분자·블루베리 음료 싱가포르 추가 수출

전북 고창 황토복분자농조합의 복분자·블루베리 음료 ‘에드림’이 싱가포르에 상륙한다. 고창황토복분자농조합(대표 서치정)은 14일 “지난 11일 주력상품인 복분자 음료 에드림의 싱가포르 현지 반응이 좋아 복분자와 블루베리 음료

를 추가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수입업체 ‘헬스트렌즈’와 맺은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이 지난해 완료된 뒤 올해부터 2014년까지 2년간 50만 달러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10만달러 상당의 복분자 음료 7t, 블루베리 음료 3t 총 10t을

수출했다. 헬스트렌즈사 대표 리사 립은 “2010년부터 4년째 고창복분자 제품을 수입 판매해 왔는데,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창복분자가 자리매김하면서, 한류 열풍과 함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윤영희기자 cy0370@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 복본 “인기 있네”

지난해 완성된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全州史庫本) 복본(復本)이 국내외에서 대여요청을 받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한지에 본뜬 복본은 전주시 경기전 전주사고에 보관됐던 태조에서 명종까지의 조선왕조실록 614책, 5만여쪽을 원본(原本)과 똑같은 부분

(副本)으로 만든 것이다. 이 복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대여, 전시됐다. 외교부와 외국대사관 한지 관련 행사와 출판기록 전시회에 대여를 요청하고 국내 박물관들도 유물전시회에 이 복본의 전시를 희망하고 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이에 따라 전주시는 ▲공익목적 ▲비영리기관 ▲대여 기간 복본 홍보 의무화 ▲대여기간 30일 이내 ▲대여료 무료 ▲유물보험 의무가입 등의 조건을 마련, 선별적으로 대여해주기로 했다. 10여권의 가치가 있는 복본 대여에 대한 일종의 기준인 셈이다. 복본은 평소 전주 경기전 어진박물관과 전주사고에 전시, 공개되고 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정읍 감곡새마을금고, 기초수급자 보험 지원

정읍시 감곡면 감곡새마을금고(이사장 유재학)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곡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20세대의 풍수해 보험 본인부담금 34만원을 지원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의 각종 재해로 인한 주택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재난관리 제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8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하는 보험으로, 감곡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어려운 지역주민의 보험료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농기센터 ‘김치 아카데미’ 성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 걸 맞는 전주 한식 세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6월19일부터 7월1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추진한 ‘전주시 김치 아카데미’를 마쳤다. 이번 교육 참가자들은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기본김치 담기 실습을 기본으로 김치발효원리, 절임방법, 김치맛과 재료궁합 등을 배웠다.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교육운영에 만족하고, 같은 수의 교육생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고 밝혔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 멸치 불법어업근절 활동단속

부안군은 ‘멸치’ 조업이 본격화되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7일 동안 멸치포획 불법어업근절 및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지역 어선들의 멸치조업으로 지역 내 어선의 어구 손괴는 물론 어업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사용 어구에는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허가어선의 어선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를 알아 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부안=정재용기자 jji0681@

남원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선정

남원시는 교육부에서 추진한 2013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인터넛쇼핑몰 운영 매니저, 로컬합동조합 결성 및 운영자’ 양성과정은 지역 특산물에 IT 분야와 결합, 기존의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시장을 개척해 소

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진로설계사, 독서논술지도사, NIE지도사, 감정코치사’ 양성사업은 교육 이수 후 방과 후 강사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8월부터 평생학습지원센터, 여성센터 등에서 강사 등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공원에 활짝 핀 연꽃 전북지역의 대표적 연꽃 군락지인 전주 덕진공원의 연꽃이 최근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